

10/19(월) 사사기 묵상 4

사사기 2:1-5

여호와의 사자는 과거에 군대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수5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자 다시 그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길갈’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전에 길갈에서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수 5:13-14,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같은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대로 ‘보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김’은 ‘벤엘’과 동일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김이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즉, 과거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다시 보김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여러가지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는,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를 Pre-incarnation 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 땅에 등장하신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 본문(여호수아 5장, 사 2장)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와는 격이 다른 존재가 여러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창 16장, 창 18장, 출 2장, 사 6:11-24, 단 3장 등등). 또 그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그들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며(창 16:3; 사 6:11-14) 또 여호와 하나님 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칭호와 제사(출 2:2-12, 창 22: 13, 사 6:11-24)를 받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살렘왕 멜기세덱의 경우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1, 3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3절,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처럼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임이 분명하지만 그를 그리스도라고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불순종

여호와와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을 할 때까지 함께 하였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사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책망하였습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어긴 언약으로 인해 당할 죄에 대한 댓가를 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그들이 영적, 육적인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나.”**). 이에 이스라엘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4절,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늦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회개에 대한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5절하,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초기에서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후회할 일을 남겨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비록 이 땅에서 완전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다라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과거의 실패와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성령 안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말입니다(**요엘 2:28-29,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 비전과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미국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있어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